

## 西坡 李以斗의 『醫鑑刪定要訣』 研究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전종욱\*

### A study on the Uigamsanjeonyogyul written by Seopa Lee-yidoo

Jeon Jong-wook\*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Technology and Civiliz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 This paper provides a general introduction of a person Seopa Lee-yidoo and the contents of his medical text, Uigamsanjeonyogyul. The paper then investigates how this text summarized and recomposed Donguibogam.

**Methods** : The paper first reviews the activities and academic leanings of Lee-yidoo, the author of Uigamsanjeonyogyul, as described in his book Seopa-munjip. Furthermore, the paper compares Donguibogam and Uigamsanjeonyogyul's process of summarizing Donguibogam. Based on this the paper divides these comparisons and introduces examples.

**Results** : When the overall composition, formation, and the original contents of Uigamsanjeonyogyul were compared with the texts of Donguibogam, it was discovered that the former wholly accepted the composition of the latter but made bold summarizations. Meanwhile, Uigamsanjeonyogyul added a detailed list of contents at the beginning of the book, and its original contents provided integration, relocation, and detailed explanations of Donguibogam two sections. It gave changes to bogam's prescription configuration and explanations on the mechanism of diseases, and it also added a section for new prescriptions. Like this, Uigamsanjeonyogyul showed a great deal of knowledge regarding the clinical field.

**Conclusions** : Uigamsanjeonyogyul which was published as a summary of Donguibogam, faithfully follows the texts of Donguibogam. At the same time, it provides summary, improvement, and rearrangement based on the author's academic leanings.

**Key Words** : Seopa Lee-yidoo, Uigamsanjeonyogyul, Donguibogam, Seopa-munjip, Joseon medicine

\* Corresponding author : Jeon Jong-wook,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Technology and Civiliz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Republic of KOREA.  
Tel : +82-63-270-5908, Fax : +82-63-270-5905, E-mail : lovejnj@gmail.com, lovejnj@jbnu.ac.kr  
Received(February 05, 2018), Revised(February 09, 2018), Accepted(February 09, 2018)

## I. 概要

### 1. 西坡 李以斗라는 인물

西坡 李以斗(1807~1873)는 朝鮮 末期의 文臣, 醫學者로 독특한 履歷을 남기고 있다. 현존하는 그의 저술로 『西坡文集』<sup>1)</sup>과 『醫鑑刪定要訣』<sup>2)</sup> 두 종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들에서 보이는 그의 이력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07년 경상북도 漆谷 上枝里에서 李憲運의 아들로 태어났다. 李以斗는 나면서부터 매우 총명하여 여러 분야의 학문을 두루 섭렵, 天文·地理·醫藥·算術에 모두 능하여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한다. 李以斗가 公職에서 활동한 것은 承政院日記 등에서 확인된다. 1866년(高宗 3)에 莊陵 參奉, 1869년(高宗 6) 1월 3일에 內資寺 奉事로, 同年 6월 24일에 義禁府都事 獻陵 直長에 임명된 사실이 나오는데 이는 文集 등의 기록과 일치한다.<sup>3)</sup>

또한 李以斗는 당대의 유명 인사들과 교류가 있었다. 문집에 거론된 인물로서 柳下 韓啓源(1814~

1882), 定軒 李鍾祥(1799~1870), 定齋 柳致明(1777~1861), 止軒 崔孝述(1786~1870), 凝窩 李源祚(1792~1872) 등이 있다.<sup>4)</sup> 이들과 관련되어 문집에 나타난 몇 가지 逸話들을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李以斗가 癸未年 17살 때 柳致明을 뵈었는데, 이때 柳致明이 그를 몹시 존중하고 제자들에게 “李君은 國家의 棟梁이라”고 하였다. 戊子年에 李源祚를 뵈었는데 그가 만난 다음 “오늘 영남에 宰相의 그릇을 보았다”고 했다. 高宗 丙寅年 7월에 江華島에 번고[丙寅洋擾]가 나니, 李以斗가 말하기를 “우리 집안은 대대로 忠義로 이름났는데, 오늘날 國難에 이르러 구차히 편안히 있는 것은 신하의 도리가 아니다(吾家世以忠義聞 臨亂苟安 非臣職也.)”라고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上京하였다. 成均館에 職을 두고 있더니 難을 맞아 모두를 도망가거나 자리를 지키지 않았는데, 마침 임금이 관청을 둘러보게 하고 보고를 받으니 李以斗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에 임금이 李以斗를 평가하기를 ‘목숨을 바쳐 의를 지킨다(效死守義)’고 할 만하다면서 특별히 莊陵 參奉을 제수하였으며, 右議政 韓啓源이 이를 두고 ‘비로소 진짜 첫 입사자[初仕]가 나왔다’고 하였다(始出眞初仕也)<sup>5)</sup>.

이상의 내용은 문집의 여러 글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李以斗의 주요 행적이다. 莊陵 參奉, 內資寺 奉事로, 義禁府都事 獻陵 直長으로 공직을 이어갔지만<sup>6)</sup> 그의 벼슬 생활은 오래지 않았다. 문집의

1) 『西坡文集』의 내용은 다음에서 참고하였다. 한국역대문집총서. 서파문집.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db.mkstudy.com/mksdb/e/korean-anthology/book/reader/2567/?sideTab=toc&articleId=2468430>

2) 『醫鑑刪定要訣』의 내용은 다음에서 참고하였다. 한국외지식콘텐츠. 한국과학기술사자료대계21. 의감산정요결.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www.krpia.co.kr/viewer?plctId=PLCT00004698&tabNodeId=NODE03872764&nodeId=NODE03872872>

3) 承政院日記에는 이외에도 1886년(고종 23) 7월 18일 漆谷에 있는 梨山別將으로 임명된 李以斗가 나오는데, 西坡文集의 跋文에 癸酉年(1873, 고종 10) 2월 4일 享年 67세로 沒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동일인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문집에 나오는 내용과 합치하는 承政院日記 기사만이 『醫鑑刪定要訣』의 저자 李以斗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承政院日記의 내용은 다음에서 참고하였다. 한국고전종합DB. 승정원일기 고종 23년 7월 18일.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db.itkc.or.kr/dir/item?itemId=ST#/dir/node?dataId=ITKC\\_ST\\_ZO\\_A23\\_07A\\_18A\\_00250&solrQ=query%E2%80%A0%E6%9D%8E%E4%BB%A5%E6%96%97\\$&solr\\_sortField%E2%80%A0\\$&solr\\_sortOrder%E2%80%A0\\$&solr\\_seclD%E2%80%A0ST\\_AA\\$&solr\\_toalCount%E2%80%A07\\$&solr\\_curPos%E2%80%A06\\$&solr\\_solrId%E2%80%A0BD\\_ITKC\\_ST\\_ZO\\_A23\\_07A\\_18A\\_00250](http://db.itkc.or.kr/dir/item?itemId=ST#/dir/node?dataId=ITKC_ST_ZO_A23_07A_18A_00250&solrQ=query%E2%80%A0%E6%9D%8E%E4%BB%A5%E6%96%97$&solr_sortField%E2%80%A0$&solr_sortOrder%E2%80%A0$&solr_seclD%E2%80%A0ST_AA$&solr_toalCount%E2%80%A07$&solr_curPos%E2%80%A06$&solr_solrId%E2%80%A0BD_ITKC_ST_ZO_A23_07A_18A_00250)

4) 한계원은 고종 때 우의정을 지냈으며, 이종상은 한성부판관을 지냈으며, 유치명 또한 대사간, 병조참판 등을 지냈다. 이원조는 철종 연간 대사간, 공조판서를 지냈고, 최효술 역시 이들과 교류하며 지방의 이름난 학자였다. 한국인명대사전.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www.krpia.co.kr/product/main?plctId=PLCT00004689>

5) 『西坡文集』 중 行狀의 내용. 한국역대문집총서. 서파문집.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db.mkstudy.com/mksdb/e/korean-anthology/book/reader/2567/?sideTab=toc&articleId=2468434>

6) 承政院日記의 내용은 다음에서 참고하였다. 한국고전종합DB. 승정원일기 고종 3년 병인.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db.itkc.or.kr/dir/item?itemId=ST#/dir/node?dataId=ITKC\\_ST\\_ZO\\_A23\\_07A\\_18A\\_00250&solrQ=query%E2%80%A0%E6%9D%8E%E4%BB%A5%E6%96%97\\$&solr\\_sortF](http://db.itkc.or.kr/dir/item?itemId=ST#/dir/node?dataId=ITKC_ST_ZO_A23_07A_18A_00250&solrQ=query%E2%80%A0%E6%9D%8E%E4%BB%A5%E6%96%97$&solr_sortF)

의하면 李元會(1827~미상)<sup>7)</sup>라는 이가 李以斗에 이르기까지 “지금 만일 返西하면 좋은 관직을 얻을 수 있고 벼슬의 前途가 한량없이 펼쳐질 것이요.”하므로 공이 정색하여 말하길, “어찌 영리를 탐하여 말은 바 직분을 바꿀 수 있겠소. 다시는 말하지 마시오.”하였다. 李元會와의 이 대화가 李以斗의 생각을 크게 바꾸었던지 그는 이후 낙향을 한다.

이때 이후 李以斗는 탄식하며 時事가 날로 잘못되어 들어키기 어려움을 알고 落鄉할 마음을 먹었으며, 餘生을 학자들과 교유하고 저술에만 전념하였다. 鍾山 沈英慶(1809~?) 등이 그의 行狀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沈英慶은 조선 말기 三陟府使 등을 지냈으며 詩로 이름이 있던 歌客이었다. 西坡文集에서 李以斗의 行狀을 쓴 崔鉉達(1867~1942)이 등장하는데, 근세에 漆谷과 淸道郡守를 지낸 인물로 西坡 집안과는 가까운 인연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요컨대 李以斗는 조선말기 격변의 시기에 영남의 지방 출신의 유학자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으로 다방면에 知的 천착을 보이면서 의학방면에도 눈여겨 볼만한 저술을 남긴 이로 평가된다. 李以斗의 후손 중 일제강점기 東京帝國大學 法學科를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법조인 李忠榮(1908~?)이 그의 曾孫이요, 이충영의 長男이 國務總理를 역임한 李壽成(1939~)임을 고장 탐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sup>8)</sup>

## 2. 『醫鑑刪定要訣』의 著述 動機와 全體 構成

저술 동기를 확인하기에 제일 좋은 자료는 저자

ield%E2%80%A0solr\_sortOrder%E2%80%A0solr\_secd%  
E2%80%A0ST\_AA%solr\_toalCount%E2%80%A07\$sol  
r\_curPos%E2%80%A06\$solr\_solrId%E2%80%A0BD\_IT  
KC\_ST\_ZO\_A23\_07A\_18A\_00250

7) 西坡文集에는 그가 統相이라는 벼슬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李元會는 후일 삼도수군통제사, 한성부판윤을 역임하다가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자 兩湖巡邊使가 되어 兩湖招討使 洪啓薰과 함께 全州 수복에 참여한 인물이다. 한국학대백과사전.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www.krpia.co.kr/search/product?keyword=%EC%9D%B4%EC%9B%90%ED%9A%8C&log=y>

8) 경북 칠곡군 지천면 매원리 매원마을보존회장 이수욱씨의 전언이다.

의 서문일 텐데, 아쉽게도 『醫鑑刪定要訣』에는 李以斗 자신의 서문이 없다. 지금의 서문은 그의 사후 후손이 목판본을 내게 될 때 최중응(崔鍾應, 1871~1944)이 쓴 것이다. 이에 李以斗 자신의 말로 된 端緒가 없을가 찾아본 끝에 西坡文集 속의 글을 하나 얻었다. 곧 西坡文集에 들어있는 ‘京本神課金口訣大全序’라는 글이 그것인데, 여기서 李以斗는 河圖洛書와 함께 占卜에 관한 내용의 책을 엄밀하게 考證하고 刪定하였다고 쓰고 있다. 李以斗 자신의 말로 책을 짓게 된 과정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醫鑑刪定要訣』을 쓰게 된 사정을 이해하는 데도 참고가 될 만하여 아래에 원문을 옮겨 본다.

余於供職之暇，悉究諸說同異，參考官本，凡歌訣詞賦頌之類，巨細畢舉，一一重訂，且間付己意 補闕晦而直解之。思欲捐俸鉅梓而傳於後，而姑未知入手否也。<sup>9)</sup>

“나는 벼슬살이 하는 여가에 (이에 대한) 여러 설들의 차이점을 연구하고 관청의 책들을 참고하여 歌訣과 詞賦, 頌 등 크고 작은 모든 문헌들을 일일이 교정하고 또한 나의 생각도 거기에 덧붙여서 빠지고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였고 바르게 풀이하였다. 봉급을 털어 관각하여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착수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앞서 언급했지만 『醫鑑刪定要訣』에는 李以斗 자신의 서문이 없다. 그러므로 비록 책은 다르지만 李以斗가 책을 짓는 기본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諸家들의 설을 빠짐없이 살피고 그 得失을 파악한 다음 그래도 모자란 부분은 본인의 뜻을 가미하여 올바른 뜻이 드러나도록 했다는 말이다. 이러한 그의 재능과 태도로 醫學 분야에 마음을 두어 저술을 낸 것이 『醫鑑刪定要訣』이리라는 추측이 자연스럽다.

9) 한국역대문집총서 서과문집 잡저 한국역대문집총서. 서과문집.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db.mkstudy.com/mksdb/e/korean-anthology/book/reader/2567/?sideTab=toc&articleId=2468427>

이제 李以斗 사후 손자 李相駿에 의해 목판본을 내게 된 과정을 서술한 崔鍾應(1871~1944)<sup>10)</sup>의 서문을 살펴보자. 1934년에 썼으므로 시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李以斗의 저술 동기와 편집 의도를 짐작하는데 간접적인 도움이 된다. 아래에 서문을 옮긴다.

의학이란 옛 성왕들이 세상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이었으나, 역사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기술 역시 쇠미해졌다. 그러므로 한국의 陽平君 許浚이 이를 근심하여 여러 의서와 몸소 체험한 처방을 수집하여 東醫寶鑑을 편찬하고 후대에 널리 보였으니, 이 책은 참으로 의가들의 나침반이다. 그러나 무릇 사람들의 질병은 類萬不同하여 그때마다의 對證 치료가 없을 수 없고, 古方만을 변함없이 純用할 수는 없다.

近古에 西坡 李以斗 선생이 하늘이 내린 재능으로 글과 학문에 대가를 이루었으니 天文, 地理, 卜筮, 算術에 이르기까지 곡진하고 정묘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한 일찍이 東醫寶鑑을 섭렵하고 의술을 깊이 탐구하였으니 약을 씹에 적중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에 그 책에서 요점이 되는 것을 손수 골라내고 본인의 뜻을 참고삼아 넣었는데, 혹은 君藥과 佐藥을 바꾼 경우도 있고, 혹은 重量을 덜고 더한 경우도 있었으며, 또한 어떤 경우에는 新方을 따로 만들어 원래 처방의 아래에 덧붙여 놓기도 하였고, 그 외 雜方과 俗方은 新方 아래에 나란히 기록해 두었으니, 책의 이름을 '醫鑑刪定'이라 한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개인적 기록에 불과한 것으로 먼지 쌓인 책 상자 속에 던져 둔지가 아

마도 근 百年이나 되었으리라. 하루는 그 후손 李相駿씨가 그 기록을 가져와서 방문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經世濟民하던 일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책으로 펴내어 세상에 내놓으려 하니, 선생님의 교정을 받고 그 글을 책머리에 두고 싶습니다." 하였다.

나는 두려워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의술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극구 사양할수록 요청은 더욱 간절하였다. 마침내 글자의 착오를 약간 바로잡고 병의 유형에 따라 病門을 나누어 3책으로 만들어 놓았다.

아아! 세상 사람들 중 經世濟民에 뜻을 둔 이라면 이 책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sup>11)</sup>

먼저 허준의 『東醫寶鑑』이 의학의 나침반이 될 중요한 의서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질병은 類萬不同이어서 症에 맞게 변화를 계속할 수밖에 없음을 말했다. 이것이 西坡 李以斗가 『東醫寶鑑』의 내용을 다시 刪定하여 요점을 골라내고 본인의 뜻을 달아 책을 낸 이유라고 하겠다. 西坡 선생은 천부의 자질로 학문에 정진하였고 天文, 地理, 卜筮, 算術 등의 분야에도 능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하였고 이런 재능이 의학에까지 미쳐 『東醫寶鑑』을 깊이 탐구하였다고 했다. 하지만 『醫鑑刪

11) 『醫鑑刪定要訣』序文은 다음에서 참고하였다. 한국의지식콘텐츠. 한국과학기술사자료대계21. 의감산정요결.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www.krpia.co.kr/viewer/open?plctId=PLCT00004698&nodeId=NODE03872873#none> 醫者, 古聖王濟世之一術, 而自夫世降, 而之術亦衰矣. 故韓陽平君許浚, 爲是之憂, 蒐聚群醫, 已驗之方, 編爲醫鑑, 廣示來後, 此誠醫家之指南. 然凡人之爲病, 類萬不同, 不可無對證斟酌, 而純用古方也. 近故, 西坡李公諱以斗, 以天挺之才, 尹爲文學大家, 以至天文地理, 卜筮算術, 無不曲盡精妙. 又嘗涉獵醫鑑, 極究是術, 試無不中. 於是, 手抄撮要者, 而參以己意, 或有君佐之換易者, 或有重量之加減者, 又或別構新方, 附于元方之下. 其他雜方與俗方, 列錄於新方之下, 名曰, '醫鑑刪定'. 蓋其始則不過爲一人之私錄, 而委諸塵篋者, 殆近百年矣. 日, 其嗣孫相駿氏, 齎其所錄, 鍾門而告曰, "是吾祖經濟之一事, 將欲綴續, 而公于世. 願吾子丁乙, 而弁諸卷也." 不佞懼然曰, "余固不聞於是術, 曷敢當是役哉?" 辭之固而請益勤. 遂略訂三豕之錯, 而隨類分門, 分爲三冊. 噫! 世之人之有志於濟世者, 不可無是書也.

10) 최종응(崔鍾應, 1871~1944)은 대구 출신의 지역 유림이자 독립운동가로, 1920년 8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상북도 宣政使로 임명되어 군자금 모금 활동을 펼쳤고 3년간 옥고를 치른 이력이 있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search.i815.or.kr/subGanhaeng.do>

定要訣. 이 다만 『東醫寶鑑』의 요점을 정리한 것만이 아니라, 때로 본인의 뜻을 드러내기도 하였다고 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君藥과 佐藥을 바꾸어 쓴 것, 重量을 달리 한 것, 새로 처방을 만든 新方, 또한 쓰일만한 雜方과 俗方을 추가로 수록한 것이 있다고 하였다. 앞서 살펴본 西坡 본인의 글 西坡文集 『京本神課金口訣大全序』에서 보인 저술의 방식과 일치하고 있어, 西坡가 『醫鑑刪定要訣』 저술에서도 이런 태도를 적용했을 것이란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다. 뒤에서 보일 『東醫寶鑑』의 처방을 10여 자로 요약한 책 첫머리 ‘目錄’의 존재와 함께, 이 책의 특징과 가치를 잘 드러내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이는 본고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에 따라 『醫鑑刪定要訣』의 저자 李以斗의 醫家로서의 위치를 정립할 가능성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짐작해 본다.

이 책은 李以斗 가문에서 근 백 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는데, 李以斗의 후손 相駿이 교정을 부탁하러간 崔鍾應에 의해 지금의 3권 형식으로 되었다고 하였다. 崔鍾應은 책의 이름을 ‘醫鑑刪定’이라고 하였지만, 실제 책명은 ‘醫鑑刪定要訣’로 되어 있다. 崔鍾應이 전체적으로 편제를 만들고 글자의 수정을 했다는 말로 미루어 볼 때, 본디 李以斗의 책의 제목은 ‘醫鑑刪定’인 것을 崔鍾應의 손을 거치면서 다시 ‘醫鑑刪定要訣’이라는 이름으로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학 내용과는 별개로 이 책을 두고 相駿씨는 할아버지가 經世濟民하던 일의 한 가지라고 하고, 崔鍾應 또한 經世濟民에 뜻을 둔 사람은 반드시 이 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의학의 일을 經世濟民의 일과 직접 연관시켜서 말하는 것은 이때까지도 전통 시기 지식인에게는 進退에 따라 지녀야 하는 자연스런 行動樣式이었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상에 나아가 벼슬하면 제도적 측면에서 經世濟民하고, 사임하고 물러나면 개별적 측면에서 救病活人하는 것을 사교와 행동의 표준으로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음을 본다. 李以斗가 단지 의학을 業으로 한 醫者로서 뿐만이 아니라 儒學者로서 다방면에 조예가 깊었던 당대의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逸話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까지도 뚜렷이 기억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외에도 李以斗의 임상 경험이나 질병, 의약에 관한 글을 찾고자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文集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문집에 다수 수록된 李以斗의 詩 중에서 ‘齏鹽’이란 시를 소개한다. ‘齏鹽’이란 변변치 않은 음식을 말하는데, 밥과 蔥湯이 丹田을 길러준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비추어 李以斗의 養生의 관점이 엿보이지만 전후 맥락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齏鹽<sup>12)</sup>

齏鹽飽喫是丁年 重到脩廊抵頂眠  
盤供水精燐白髮 飯兼蔥湯養丹田  
滿盞蘆菴簾櫳上 小鼎羹梅筆架前  
徵鼓收單朝且夕 遲遲四篇二童傳

나물김치 하나라도 배불리 먹을 때가 한창 때라/  
여러 번 반찬 집에 가 머리를 숙였었지  
그릇의 맑은 물에 비친 백발이 가련하고/  
밥과 蔥湯은 丹田을 길러주네  
무 가득 담은 단지는 주렴과 창살위에 있고/  
매실 국 담은 작은 술은 붓 시렁 앞에 놓였네  
아침저녁으로 점고하고 물목을 구비하니/  
제기 네 그릇을 두 아이가 천천히 가져 오네

『醫鑑刪定要訣』(이하 『刪定』)은 韓國科學技術史 資料大系 醫藥學編21에 수록되어 있다. 본문에 앞서 醫鑑刪定要訣序(이하 序文), 醫鑑刪定要訣總錄(이하 總錄), 醫鑑刪定要訣目錄(이하 目錄)이 차례대로 나온다. 醫鑑刪定要訣序는 崔鍾應(1871~1944)이 쓴 이 책의 ‘서문’으로 책이 나오게 된 경위와 책의 구성을 간략하게 설명한다(Fig. 1). ‘총록’은 일종의 간편목차인데, 총 76개의 병문이 2쪽으로 정리되었다(Fig. 2). 이 병문은 당연히 『東醫寶鑑』(이하 『寶鑑』)의 병문 순서와 거의 모두 일치한다(Appendix 1). 그 다음의 ‘목록’은 일종의 상세목차인데, 그 병문에

12) 『西坡文集』 詩. 齏鹽. 한국역대문집총서. 서과문집.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db.mkstudy.com/mksdb/e/korean-anthology/book/reader/2567/?sideTab=oc&articleId=2468390>

나오는 처방과 함께 해당 내용을 10자 내외의 간결한 문장으로 압축해 수록한 것이다(Fig. 3). 이 책에는 총 1420개의 처방이 등장하는데, 이는 『寶鑑』 전체 처방으로 알려진 4200여 처방의 1/3 가량에 해당한다. 간결하다 하더라도 1420개에 달하는 처방에 일정한 길이의 문장이 달린다면 ‘目錄’의 분량이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目錄’은 책 전체 468면 중에서 50면을 차지할 정도의 양이 된다. 반면 이런 방식의 간결한 사전 설명은 본문의 방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이 ‘目錄’은 ‘醫鑑刪定要訣’이라는 冊名의 의미에 잘 부합하는 편집이라 할 만하며 이 책의 빼놓을 수 없는 특징 중 하나이다. 이후 본문의 내용은 3권으로 편제되어 있는데(Fig. 4), 내용의 순서는 『寶鑑』의 순서와 동일하다(Appendix 1).

Figure 1. Preface of Sanjeong(L)

Figure 2. Brief list of Sanjeong(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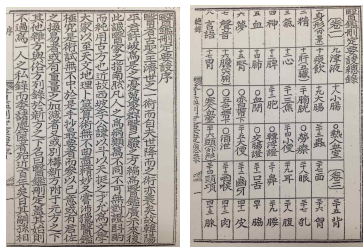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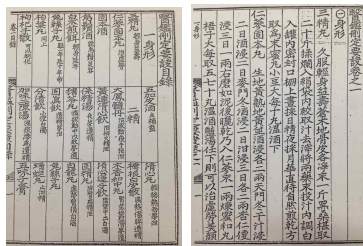


Figure 3. Detailed list of Sanjeong(L)

Figure 4. First page of the main body(R)



구체적으로 「內景」 ‘身形’에서 시작하여 「外形」의 ‘頭’까지를 1권, 「外形」 ‘面’에서 「雜病」의 ‘火’까지를 2권, 이후 「內傷」에서부터 「婦人」, 「小兒」까지를 3권으로 엮었다. 그 다음의 「湯液」, 「鍼灸」 편은 생

략하였다. 이런 면에서 『寶鑑』의 다이제스트 판이라는 평가가 자연스럽다.<sup>13)</sup>

하지만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다. ‘身形臟腑圖’, ‘五臟六腑’처럼 그림을 제시하거나 전체적 醫論에 대해 설명한 곳은 제외하였고, 雜病篇의 ‘天地運氣’에서부터 ‘汗吐下’ 3법까지를 생략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病門 중에서 ‘邪祟’, ‘解毒’, ‘雜方’ 부분은 제외한 반면 ‘喘’ 항목은 분리하여 신설하였다. 작으나마 편집의 의도가 일부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흔적들이다. 물론 본격적인 변용에 대해서는 내용의 문장을 살펴보면서 확인할 일이다. 다음 절에서는 『寶鑑』과 비교하면서 내용상에서 이렇게 변형되고 첨가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 原文을 들어 분석하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 II. 『東醫寶鑑』과 비교를 통해 본 『醫鑑刪定要訣』의 特徵

본 절에서는 『刪定』의 형식과 내용의 특징을 刪定 대상인 『寶鑑』과의 비교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刪定’이라는 책의 제목대로 이 책은 『寶鑑』을 요약하고 간췌한 것이므로, 새로운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은 일차적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즉 책의 저술 의도는 어차피 새로운 것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잘 다듬고 재편하여 보기 쉽고 알기 쉽게 하려는데 그 근본 소이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로 잘 간췌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핵심을 요약했는지가 더 큰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寶鑑』 자체가 기존의 의서를 刪定하면서 이룬 창조적 종합의서인 만큼 刪定 작업 자체가 의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볼 때, 이 책에서 『寶鑑』을 刪定하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얻는 意義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두 종류의 序文의 저술 의도를 읽어본 뒤에는 李以斗의 학문적 태도에 기반한 어떤 변용이 있을 가능성, 또한 新方,

13) 물론 이 같은 편집의 이유가, 이이두 자신이 침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든지 또는 약을 위주로 하는 독자를 위한 고려였다든지 또는 본초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는 임상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든지 등의 설명 가능성은 열려있다.

雜方, 俗方 등 새로운 추가 등도 세밀하게 분석해 볼 의의가 있다고 보였다. 이하 절에서는 보다 세밀하게 『寶鑑』의 처방이 『刪定』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다섯 가지 꼭지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 1. 刪定 작업 결과 新方을 標題方으로 올리다

구체적으로 맨 처음 ‘身形’ 편에 나온 처방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려한다. 『寶鑑』은 瓊玉膏, 三精丸, 延年益壽不老丹, 遐齡萬壽丹, 延齡固本丹, 盤龍丸, 人蔘固本丸, 玄菟固本丸, 固本酒, 烏鬚酒 등 10개가 수록되어 있는데<sup>14)</sup> 『刪定』에서는 이 중 三精丸, 人蔘固本丸, 固本酒, 烏鬚酒 등 4개만을 실고 있다.<sup>15)</sup> 더구나 이 4개는 『寶鑑』에 나오는 10개 처방 중에서 비교적 간단한 제형의 처방에 속한다(Table 1).

Table 1. Comparison of the prescriptions of Bogam and Sanjeong in the chapter Shinhyung

	『寶鑑』	『刪定』 [目錄]
本方	瓊玉膏, 三精丸, 延年益壽不老丹, 遐齡萬壽丹, 延齡固本丹, 盤龍丸, 人蔘固本丸, 玄菟固本丸, 固本酒, 烏鬚酒 등 10 종	三精丸 [輕身益壽] 人蔘固本丸 [治虛勞] 固本酒 烏鬚酒 [能烏鬚美容]
單方/附	[朮]煎餌久服輕身延年, [兔絲子]久服明目輕身延年, [柏葉]久服除百病延年益壽, [枸杞]久服輕身不老, 외 [五加皮]久服輕身耐老, 외 23 종	白朮煎餌 [輕身延年] 兔絲子丸 [服一年延年命] 柏葉丸 [同上] 枸杞子散 [可以羽化] 五加皮酒 [主補益]

『刪定』에는 ‘身形’ 항목에 표제 처방 4개를 제시한 뒤 ‘附’로 5개 약방을 더 수록하였다. 곧 白朮煎, 兔絲子丸, 柏葉丸, 枸杞子散, 五加皮酒가 그것이다. 그러면 이들 약방이 서문에서 崔鍾應이 언급한 李以斗의 ‘新方’, ‘雜方’, ‘俗方’ 등에 해당하는 것일까? 분석 결과 그것은 아니었다.

『東醫寶鑑』이라는 방대한 의서는 각 항목 마지막에 ‘單方’을 추가로 편집해 두어 용약의 확장에 만전을 기한 완전한 의서이다. 李以斗가 『寶鑑』의 표제 처방 너머 추가적인 약재를 구하는데 우선 『寶鑑』單方 부분을 살필 여지가 충분하다. 실제로 『寶鑑』‘身形’ 말미의 ‘單方’을 확인해 보면 총 23종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朮]煎餌久服輕身延年, [兔絲子]久服明目輕身延年, [柏葉]久服除百病延年益壽, [枸杞]久服輕身不老, [五加皮]久服輕身耐老 등 5종을 선별하여 『刪定』에 수록한 것임이 확인 된다<sup>16)</sup>. 차이점이 있다면 『寶鑑』에는 단방에 사용되는 本草 이름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刪定』에서는 약제의 제형을 표기하는 丸, 散, 酒, 煎餌 같은 용어를 추가해서 하나의 제형을 갖춘 약방으로 제시해 놓은 정도이다.

14) 『東醫寶鑑』 내용은 다음에서 참고하였다. 동의보감번역위원회 編, 대역동의보감. 법인문화사. 서울. 1999. pp.131-134.

15) 『醫鑑刪定要訣』의 내용은 다음에서 참고하였다. 한국의지식콘텐츠. 한국과학기술사자료대계21. 의감산정요결. 원문 이미지 7/468면.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www.krpia.co.kr/viewer?plctId=PLCT00004698&tabNodeId=NODE03872764&nodeId=NODE03872872

16) 동의보감번역위원회 編. 대역동의보감. 법인문화사. 서울. 1999. pp.134-138.

그렇다면 모든 경우에 ‘附’의 내용이 『寶鑑』에 포함되는 것일 뿐인가? 崔鍾應이 서문에서 말한 것처럼 ‘新方’, ‘雜方’, ‘俗方’이 추가되었다는 설명은 무리한 억측인 것일까? 그렇지 않다.

권1 맨 마지막 항목 ‘後陰’의 ‘附’에는 五倍子, 藥艾, 腐鷄卵 등 3종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寶鑑』의 ‘後陰’ 항목 ‘單方’에 나오는 것은 藥艾과 五倍子다. 애엽은 艾葉治痔漏... 으로 비교적 분명하게 나오고, 오배자는 五倍子主五痔及腸風脫肛으로 연관되는 대목이 나온다.<sup>17)</sup> 그에 비해 『刪定』의 腐鷄卵의 용법(腐鷄卵, 一二箇中, 納蜈蚣一首, 陰乾, 作末, 塗之.)<sup>18)</sup>은 『寶鑑』에서 찾을 수 없었다. 다만 蜈蚣油로 치질을 치료하는 방법<sup>19)</sup>은 나오는데, 李以斗가 여기에서 腐鷄卵을 추가하여 확장된 치료법을 수록한 것으로 추측된다. 腐鷄卵에 蜈蚣을 넣고 陰乾하여 가루내어 환부에 붙이는 법이 당시의 俗方 등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Table 2. Comparison of the single-medicine prescriptions of Bogam and Sanjeong in the chapter ‘Anus’

『寶鑑』‘後陰’‘單方’	刪定‘後陰’‘附’
艾葉 治痔漏... 五倍子 主五痔, 及腸風脫肛... 蜈蚣油 ○治痔, 活蜈蚣一條, 浸香油內, 候生微略熬, 塗痔上, 果驗. 陳久愈妙.<綱目>	藥艾 五倍子 腐鷄卵, 一二箇中, 納蜈蚣一首, 陰乾, 作末, 塗之.

李以斗는 『寶鑑』 내에 수록되어 있더라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찾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쉽

게 찾아 볼 수 없는 곳에서까지 유관한 내용을 찾아내어 『刪定』의 항목에 통합해서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寶鑑』에 보이지 않는 처방, 곧 新方을 추가한 데에서도 확인되는데, 『寶鑑』에 보이지 않는 처방 중 ‘前陰’ 병문에서 보이는 표제 처방 3개를 골라 그 실상을 추적해본다(Table 3).

Table 3. Comparison of the single-medicine prescriptions of Bogam and Sanjeong in the chapter ‘Urine’

『寶鑑』‘小便’	『刪定』‘小便’
○童兒精未盛而御女, 老人陰已痿而思色, 以降其精, 則精不出而內敗, 莖中痛澁而爲淋. 八味丸料, 加車前子, 牛膝煎服.<入門>	加味八味湯 治老人陰已痿而思色, 莖爲淋. 八味丸, 加車前子.
○病淋而莖中痛不可忍. 六君子湯(方見痰飲)加知母, 黃栢, 滑石, 石葦, 琥珀煎服.<丹心>	加味六君子湯 治病淋, 莖中痛不可忍. 半夏, 白朮, 各一錢半, 陳皮, 白茯苓, 人蔘, 知母, 黃栢, 滑石, 車前子, 牛膝, 各一錢, 甘草灸五分, 干三棗二, 蔥五
○莖中痛, 出白津, 小便閉時作痒. 小柴胡湯 加梔子, 澤瀉, 黃連炒, 木通, 龍膽草, 赤茯苓, 煎服. 兼服六味地黃丸(方見五藏)爲妙.<回春>	加味小柴胡湯 治莖中痛, 出白津, 小便閉, 時作痒. 柴胡三錢, 黃芩二錢, 人蔘, 半夏, 各一錢, 梔子, 澤瀉, 黃連炒, 木通, 龍膽草, 赤茯苓, 生乾草, 各一錢半, 甘艸五分, 干三棗二.

『刪定』에서 『寶鑑』 내에 표제처방으로 나오지는 않는 加味八味湯, 加味六君子湯, 加味小柴胡湯이 나타나는데<sup>20)</sup>, 과연 이것이 『寶鑑』에 있지 않은 새로운 처방인가 확인하려면 좀 더 내용적 분석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이들 세 처방은 모두 『寶鑑』 ‘前陰’ 莖中痒痛에서 다양한 활용의 加味方으로 서술된 것이지만<sup>21)</sup>, 李以斗는 이들 처방은 ‘小便’ 병문으로 옮김

17) 동의보감번역위원회 編. 대역동의보감. 법인문화사. 서울. 1999. pp.851-854.

동의보감에는 이 외에도 오배자의 활용법으로 “○脫肛 五倍子末三錢, 白礬一塊...同煎湯, 先煎後洗. 又取末, 糝肛托入”이 나오며 또한 獨虎散이라는 이름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다. “獨虎散 治脫肛, 五倍子...末糝之.”

18) 『醫鑑刪定要訣』 원문이미지 258/468면.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www.krpia.co.kr/viewer?plctId=PLCT00004698&tabNodeId=NODE03872764&nodeId=NODE03872872

19) 동의보감번역위원회 編. 대역동의보감. 법인문화사. 서울. 1999. p.850. “蜈蚣油 ○治痔活蜈蚣一條 浸香油內 候生微略熬 塗痔上 果驗 陳久愈妙<綱目>”

20) 동의보감번역위원회 編. 대역동의보감. 법인문화사. 서울. 1999. pp.140-141.

21) 동의보감번역위원회 編. 대역동의보감. 법인문화사. 서울.

과 동시에 당당히 표제 처방으로 올린 것이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加味八味丸의 경우 車前子 하나만을 추가했고, 加味六君子湯의 경우 동의보감에는 들어있는 石葦, 琥珀은 제외하고 대신 차전자, 우슬을 추가했으며, 加味小柴胡湯의 경우 역시 추가로 生乾芍를 올리고 있다(Table 3. 밑줄).<sup>22)</sup> 서문에 언급된 新方과 관련하여 李以斗의 『寶鑑』 산정 작업이 실지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 2. 두 項目 또는 醫案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하다

『刪定』의 桂枝甘草湯의 예를 보면, 실상 『寶鑑』에는 두 건의 인용문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확인된다(Table 3. 밑줄).

Table 4. Integration of two items: Examples of the integration of contents or medical report

『寶鑑』 ‘寒’	『刪定』 ‘寒’
桂枝甘草湯 <sup>23)</sup> 治心悸，欲得按。桂枝四錢，甘草灸二錢。右剉作一貼，水煎服。<仲景> 寒過多，其人叉手自冒心，心下悸，欲得按，甚則身振振欲擗地，宜桂枝甘草湯。<仲景>	桂枝甘草湯 <sup>24)</sup> 治心悸，欲得按，甚則身振振欲擗地，桂枝四錢，甘草灸二錢。
『寶鑑』 ‘言語’	『刪定』 ‘言語’
治法 <sup>25)</sup> 一婦人病喜笑不已，已半年，衆治無效。戴人曰，此易治也，滄鹽成塊者二兩，餘火煨令赤，放冷，研細，河水一大碗同煎，溫服三次，以釵股探喉，吐出熱痰四五升，次服黃連解毒湯，不數日而笑定。<子和>	附 白塩湯 <sup>26)</sup> 治喜笑不已。白塩二兩，煨，水一碗，煎服。
『寶鑑』 ‘積聚’/ ‘血’	『刪定』 ‘血’

1999. pp.424-425.

22) 『醫鑑刪定要訣』 원문이미지 140-141/468면.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www.krpia.co.kr/viewer?plctId=PLCT00004698&tabNodeId=NODE03872764&nodeId=NODE03872872>

六鬱湯 <sup>27)</sup> 開諸鬱火。 便香附，蒼朮，神麴，梔子，連翹，陳皮，川芎，赤茯苓，貝母，枳殼，紫蘇葉各一錢，甘草五分。右剉，作一貼，薑三片，水煎服。<醫鑑> 薄厥證 <sup>28)</sup> 入門曰，一人素無病，忽吐血半斗，脉弦急。陳景魁示之曰，薄厥證也，得於大怒氣逆，陰陽奔併，用六鬱湯而得愈。(方見積聚)	六鬱湯 <sup>29)</sup> 治大怒，氣逆，陰陽來併，吐血半斗。便香附，蒼朮，神曲，梔子，連翹，陳皮，赤茯苓，川芎，貝母，枳角，紫蘇葉，各一錢，甘草五分，干三，煎服。
--	--

즉, 心悸, 欲得按이라는 증상과 甚則身振振欲擗地이라는 증상을 계지감초탕의 적응증으로 나란히 함께 올리고 처방 구성까지 뒤에 이었는데, 바로 『寶鑑』의 두 인용문을 하나로 묶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刪定』과 『寶鑑』의 문장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刪定의 과정을 확인하면 두 항목의 내용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좀 더 교묘한 경우도 나타난다. 아래에 『刪定』에 실린 白鹽湯이 『寶鑑』의 醫案을 요약한 것임을 보였다(治法 밑줄). 즉 웃음을 멈추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는 醫案의 형태로 기록된 것인데, 약제와 용법을 몇 글자만 뽑아 ‘附’로 수록하고 있다. 『刪定』의 六鬱湯 역시 醫案의 증상 부분을 따와서 본

23) 동의보감번역위원회 編. 대역동의보감. 법인문화사. 서울. 1999. p.1036.

24) 『醫鑑刪定要訣』 원문이미지 293/468면.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www.krpia.co.kr/viewer?plctId=PLCT00004698&tabNodeId=NODE03872764&nodeId=NODE03872872>

25) 동의보감번역위원회 編. 대역동의보감. 법인문화사. 서울. 1999. p.255.

26) 『醫鑑刪定要訣』 원문이미지 91/468면.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www.krpia.co.kr/viewer?plctId=PLCT00004698&tabNodeId=NODE03872764&nodeId=NODE03872872>

27) 동의보감번역위원회 編. 대역동의보감. 법인문화사. 서울. 1999. p.1278.

28) 동의보감번역위원회 編. 대역동의보감. 법인문화사. 서울. 1999. p.219.

29) 『醫鑑刪定要訣』 원문이미지 82/468면.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www.krpia.co.kr/viewer?plctId=PLCT00004698&tabNodeId=NODE03872764&nodeId=NODE03872872>

처방에 통합하였다(薄厥證 밑줄).

『寶鑑』에 수록된 六鬱湯<sup>30)</sup>에는 거기서는 『刪定』의 六鬱湯에 보이는 적응 병증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결국 이 병증은 『寶鑑』醫案에 나온 부분(밑줄)을 가려내어 六鬱湯의 적응 병증으로 풀어서 옮긴 것이 확인된다. 李以斗는 『寶鑑』의 六鬱湯을 옮겨 수록하되, 거기서 제시되지 않은 적응 병증은 『寶鑑』에서 관련 醫案을 찾아 낸 다음 그것을 간추려 처방에 통합하여 수록하였다. 그 결과 六鬱湯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이전보다 그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하기 용이해졌음은 쉬이 짐작이 된다.

### 3. 處方이 속한 病門을 再調整하다

煮附丸은 『寶鑑』胞門에 속해 있던 처방인데 李以斗는 ‘氣門’의 표제 처방으로 옮겼다. 이런 상황을 다음의 경우처럼 표기해 두었다(Table 5).

『寶鑑』胞門에 속해 있는 煮附丸을 『刪定』에서는 氣門으로 옮겨왔다는 뜻이다. 물론 『刪定』에의 포문에도 자부환은 중복으로 수록되어 있고, 또 보감에서 煮附丸의 異名(香附丸)을 설명하는 또 다른 항목의 내용을 그대로 따 왔다. 李以斗가 이렇게 煮附丸을 氣門의 표제 처방으로 증시하여 올린 데에는 月經不調 증상이라는 결과보다는 氣의 鬱滯라는 원인에 기준을 맞추려는 뜻을 표현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작은 변모 하나하나가 『刪定』 편제에서의 李以斗 자신의 의견의 표출로 읽힌다.

Table 5. Examples of the rearrangement of contents of Bogam

『寶鑑』‘胞’	『刪定』‘氣’/‘胞’
---------	-------------

30) 『寶鑑』의 六鬱湯은 2종이 있는데 모두 『刪定』에 나타난 적응 증상은 없다. 동의보감번역위원회 編. 대역동의보감. 법인문화사. 서울. 1999. p.1278.

煮附丸 <sup>31)</sup> 治經候不調, 臍腹痛, 面色萎黃, 飲食減少, 或崩漏帶下. 香附子, 擦去毛, 好醋煮, 半日焙, 爲末, 醋糊和丸梧子大, 米飲下五七十丸.<綱目> ○一名香附丸. 又名醋附丸. 治婢妾氣鬱, 經多不調.	煮附丸 <sup>32)</sup> 治婢妾氣鬱, 經多不調. 香附子醋炒半日焙, 爲末, 醋和丸梧子大, 米飲下七十丸.[在胞門]
『寶鑑』‘聲音’/‘虛勞’/‘消渴’ 法與失音相似 <sup>33)</sup> 吐瀉及大病後, 雖有聲而不能言, 又能進藥, 此非失音乃腎怯, 不能上接於陽故也. 當補腎地黃元(方見虛勞), 主之. 失音乃感風寒卒病耳.<錢仲陽> 腎地黃元 <sup>34)</sup> 腎消, 能降心火, 益腎水, 止消渴, 明目耳. 黃柏一斤剉同, 地黃晒乾, 生地黃半斤酒浸二日蒸爛研膏與黃柏拌晒乾, 白茯苓四兩, 熟地黃, 天門冬, 人蔘, 甘菊各二兩, 條芩酒炒, 當歸, 枳殼, 麥門冬, 片芩生各一兩. 右爲末, 水丸梧子大, 空心鹽酒下七八十丸.<丹心>	『刪定』‘聲音’ 加味地黃元 <sup>35)</sup> 治吐瀉, 大病後, 雖有聲而不能言, 此非失音, 乃腎急 <sup>36)</sup> . 熟芩八兩, 山藥, 山茱萸, 各四兩, 澤瀉, 牡丹皮, 白茯苓, 當歸身, 五味子, 各三兩, 黃柏, 知母, 破古紙, 各二兩. 蜜丸梧子大.

‘聲音’에 나오는 加味地黃元도 처방 이름과 소속 병문과의 관계를 생각하게끔 하는 예이다. 그런데 『寶鑑』에 가미지황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처방이 특정하여 나오지는 않는다. 다만 ‘腎怯’이라는 병명을 설명하는 곳을 확인해보면 『刪定』에서 적응병중인 ‘腎

- 31) 동의보감번역위원회 編. 대역동의보감. 법인문화사. 서울. 1999. p.361.
- 32) 『醫鑑刪定要訣』 원문이미지 72/468면(氣). 114/468면(胞).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www.krpia.co.kr/viewer?plctId=PLCT00004698&tabNodeId=NODE03872764&nodeId=NODE03872872>
- 33) 동의보감번역위원회 編. 대역동의보감. 법인문화사. 서울. 1999. p.249.
- 34) 동의보감번역위원회 編. 대역동의보감. 법인문화사. 서울. 1999. p.1333.
- 35) 『醫鑑刪定要訣』 원문이미지 90/468면.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www.krpia.co.kr/viewer?plctId=PLCT00004698&tabNodeId=NODE03872764&nodeId=NODE03872872>
- 36) 『刪定』의 腎急은 『寶鑑』의 腎怯과 같은 것으로 본다.

急'으로 이해되는데, 그 내용이 가미지황원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므로 『刪定』이 『寶鑑』의 이 부분을 따왔다고 짐작된다. 이를 근거로 볼 때, 『刪定』 본문에서 따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加味地黃元은 『寶鑑』의 '補腎地黃元'을 지칭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런데 『寶鑑』 補腎地黃元은 '虛勞'문에 나온다고 하였지만(밀줄), 실제 『寶鑑』의 '虛勞' 병문에는 補腎地黃元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寶鑑』에는 또 다른 補腎地黃元이 '消渴' 병문에 존재하는데, 이 '消渴'문의 補腎地黃元은 『刪定』의 加味地黃元과는 처방 구성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필자의 결론은 이렇다. 『寶鑑』에서 補腎地黃元의 처방이 虛勞에 보인다고 한 것은 착오이며 실제로는 消渴에 나온 補腎地黃元이 맞다. 이런 상황에서 李以斗는 聲音의 치료의 근본은 腎에 있고 그 門戶는 肺에 있다(聲音出於腎, 肺爲聲音之門戶, 腎爲聲音之根)<sup>37)</sup>는 뜻을 살려 성음에 속하는 처방으로 되살리고 '補腎'地黃元을 '加味'地黃元이라는 표제 처방으로 올린 것이다.

앞서 新方 논의에서 加味00方이라는 형식으로 표제 처방을 올린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물론 약제의 가감은 李以斗 본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이와 같은 가감방을 표제 처방으로 채택하는 방식이 곧 李以斗의 창안이라 할 것이다.

#### 4. 『東醫寶鑑』의 내용을 詳細히 풀이 說明하다

대부분 『刪定』이 『寶鑑』의 내용을 줄인 대신 아래 茯苓五味子湯과 같은 경우 그 반대로 내용을 늘여서 설명하고 있다. 대체로 『寶鑑』 내의 원 내용이 어려운 의학적 용어가 포함된 경우가 그렇다. 몇 가지를 예를 먼저 표로 제시하고 달라진 점을 보이고자 한다(Table 6).

Table 6. Examples of the enlargement of contents of Bogam

『寶鑑』 '痰飲'	『刪定』 '痰飲'
茯苓五味子湯 <sup>38)</sup> 治支飲, 手足冷痺, 多唾, 小腹氣上衝胸咽, 面熱如醉, 時復眩冒. 赤茯苓二錢, 桂心, 甘草各一錢半, 五味子一錢二分半. 右剉作一貼水煎服. 支飲法當冒, 冒者必嘔, 嘔者復滿, 加半夏以去其飲, 飲去嘔則止.<仲景> 支飲 咳逆, 倚息, 短氣不得臥. 其形如腫, 謂之支飲. 小青龍湯(方見寒門)主之.	茯苓五味子湯 <sup>39)</sup> 治咳逆, 倚息短氣, 不得臥, 小腹氣上衝, 面熱如醉, 時復眩冒. 赤茯苓二錢, 桂心, 甘草, 半夏, 各一錢半, 五味子一錢二分, 干五棗二, 蔥五.
『寶鑑』 '大便'	『刪定』 '大便'
吳茱萸湯 <sup>40)</sup> 治脾胃泄. 吳茱萸揀淨每五錢, 白朮煮去滓, 入鹽小許, 通口服. 蓋茱萸能緩膀胱, 水道既清, 大腸自固, 餘藥雖熱, 不能分解清濁也.<得效> 脾胃泄 脾胃泄者, 肢體重着, 中脘有妨, 面色萎黃, 腹肚微滿, 宜用蒼白朮, 厚朴, 木香, 乾薑, 生肉豆蔻.<直指>	吳茱萸湯 <sup>41)</sup> 治脾胃泄, 身體重着, 中脘有妨, 面黃, 腹滿. 吳茱萸三錢, 蒼朮, 白朮, 厚朴, 香附子, 肉豆久, 砂仁, 各一錢, 木香, 陳皮, 乾干, 各八分, 甘草灸五分, 干三, 梅二, 水煎服.

먼저 『寶鑑』에서 茯苓五味子湯은 '支飲'이라는 치료 병증을 포함하고 있는데 『刪定』에서는 이 용어를 모두 풀어놓았다. 곧 '支飲'을 '咳逆, 倚息短氣, 不得臥'로 대체한 것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미 『寶鑑』의 '支飲' 항목에서 "咳逆 倚息 短氣 不得臥의 증상을 支飲이라고 칭한다"고 설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이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支飲 밀줄). 병증 용어 대신 대표적 3가지 증상을 모두 옮겨 붙인 것

38) 동의보감번역위원회 編. 대역동의보감. 법인문화사. 서울. 1999. pp.276-277.

39) 『醫鑑刪定要訣』 원문이미지 94/468면.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www.krpia.co.kr/viewer?plctId=PLCT00004698&tabNodeId=NODE03872764&nodeId=NODE03872872>

40) 동의보감번역위원회 編. 대역동의보감. 법인문화사. 서울. 1999. p.442.

41) 『醫鑑刪定要訣』 원문이미지 146-147/468면.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www.krpia.co.kr/viewer?plctId=PLCT00004698&tabNodeId=NODE03872764&nodeId=NODE03872872>

37) 동의보감번역위원회 編. 대역동의보감. 법인문화사. 서울. 1999. p.247.

은 아마도 ‘지음’이라는 전문용어가 전달이 어렵다고 여겨서일 것이다. 우리는 李以斗의 『刪定』에서 이처럼 단지 『寶鑑』의 내용을 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량을 늘린 부분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刪定』의 다양한 요약 방식의 한 측면이다.

뿐만 아니라 『寶鑑』의 원처방인 茯苓五味子湯에는 半夏가 들어가지 않았다. 다만 嘔逆이 있을 경우 半夏를 추가하여 痰飲을 제거해 주며 痰飲이 제거되면 嘔逆이 그친다는 설명이 추가되어 있다(『寶鑑』 茯苓五味子湯 밑줄). 李以斗는 이 추가된 내용을 그대로 『刪定』의 茯苓五味子湯 속으로 옮겨서 半夏 1錢 5分을 명시하고 있다. 支飲의 병증에는 거의 冒, 嘔, 腹滿 같은 증상이 필연적으로 동반된다고 보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의 吳茱萸湯에서도 비슷하다. 『寶鑑』의 吳茱萸湯의 본문에는 ‘脾泄’을 치료한다고만 하였는데, 이에 李以斗는 『寶鑑』의 다른 곳에서 脾泄이라는 병증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따와서 처방 속에 옮겼다. 처방 구성 또한 脾泄을 설명하는 곳에서 제시한 약재를 모두 끌어와서 본디 吳茱萸湯에 추가하고 통합하였다. 덕분에 『寶鑑』 吳茱萸湯과 비교해 처방 구성이 훨씬 많아졌다. 이와 같은 예는 그 외에도 肝積(肥氣)을 치료하는 肥氣元이나, 肺積(息賁)을 치료하는 息賁湯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sup>42)</sup>

### 5. 『東醫寶鑑』의 處方構成과 病機 說明에 변화를 주다

처방에서 분량의 차이 정도는 『刪定』에서 자주 나타나며 특히 생강과 대추의 추가[干三棗二 등]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이런 내용들을 굳이 따로 언급할 것까지 없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런 작은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중요한 약재의 구성의 차이나 藥量

의 차이가 있음은 물론 그 변화가 실제 질병의 病機와 연계가 드러나는 경우 몇 가지를 들고자 한다.

Table 7. Examples of the change of prescriptions and disease mechanism of Bogam

『寶鑑』 ‘寒’	『刪定』 ‘寒’
三黃瀉心湯 <sup>43)</sup> 治吐血大作, 此乃熱之甚也. 大黃三錢, 黃連, 黃芩各一錢, 加生地黃二錢, 右剉, 作一貼, 水煎服. <仲景>	三黃瀉心湯 <sup>44)</sup> 治心下痞硬. 大黃, 黃連, 各二錢, 黃芩一錢, 干五棗二.
『寶鑑』 ‘寒’ / ‘津液’	『刪定』 ‘津液’ / (寒)
小柴胡湯 <sup>45)</sup> 治少陽病半表半裏, 往來寒熱, 能和其內熱, 解其外邪, 傷寒方之王道也. 柴胡三錢, 黃芩二錢, 人參, 半夏各一錢, 甘草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入門> 盜汗 肝熱者, 宜龍膽散. 欲眠且合, 則汗出者, 膽有熱也, 宜小柴胡湯.	小柴胡湯 <sup>46)</sup> 治欲眠且合, 則汗出者, 膽有熱. 黃芩, 柴胡, 各三錢, 人參, 半夏, 各一錢, 薑龍膽, 甘艸, 各八分, 煎服.
『寶鑑』 ‘頭’	『刪定』 ‘頭’
芎朮湯 <sup>47)</sup> 治冒雨中濕, 頭重鼻塞, 眩暈, 川芎, 白朮, 半夏薑製, 各二錢, 甘草灸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七片, 水煎服.<入門>	芎朮湯 <sup>48)</sup> 治臂流關節, 臂痛, 手重, 不可俛仰, 或自汗頭眩, 痰逆惡心, 川芎, 白朮, 陳皮, 各二錢, 甘艸灸一錢, 干七片.
『寶鑑』 ‘暑’	『刪定』 ‘暑’
玉露散 <sup>49)</sup> 治暑渴. 寒水石, 滑石, 石膏, 天花粉各一兩, 甘草五錢, 右爲細末, 每三錢, 井水調下.<丹心>	玉露散 <sup>50)</sup> 治暑渴. 寒水石, 滑石, 石膏, 天花粉, 各一兩, 香薷, 黃連, 厚朴, 甘艸, 各五分. 爲細, 井水調服.

43) 동의보감번역위원회 編. 대역동의보감. 법인문화사. 서울. 1999. p.1043.

44) 『醫鑑刪定要訣』 원문이미지 296/468면.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www.krpia.co.kr/viewer?plctId=PLCT00004698&tabNodeId=NODE03872764&nodeId=NODE03872872>

45) 동의보감번역위원회 編. 대역동의보감. 법인문화사. 서울. 1999. p.263. p.1008.

42) 동의보감번역위원회 編. 대역동의보감. 법인문화사. 서울. 1999. p.1276. p.1285.

『醫鑑刪定要訣』 원문이미지 221-223/468면.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www.krpia.co.kr/viewer?plctId=PLCT00004698&tabNodeId=NODE03872764&nodeId=NODE03872872>

잘 살펴보면 『刪定』의 三黃瀉心湯은 보감에 비해 대황의 용량은 1돈이 줄고, 황련의 용량은 1돈이 늘었다. 生地黃은 아예 빼버렸고 干五棗二는 추가하였다. 이런 약의 구성의 변화와 용량의 변화는 당연하게도 적용 병증에 대한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寶鑑』은 열이 심한 경우에 생기는 吐血을 치료하는 용도로 三黃瀉心湯을 기록한 데 비해, 『刪定』은 心下痞硬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제시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는 生地黃이 빠지고 大黃·黃連의 용량을 조정함으로써 吐血 치료보다는 心下痞硬의 치료 처방으로 일신시킨 李以斗의 용약술의 일단을 엿보게도 한다. 崔鍾應의 서문에서 “君藥과 佐藥을 바꾼 경우도 있고, 혹은 重量을 덜고 더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小柴胡湯의 예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경우이다. 小柴胡湯은 『寶鑑』 ‘寒’ 병문에 傷寒 少陽病의 半表半裏證을 치료하는 기본 처방으로 나온다. 물론 『刪定』에서도 ‘寒’ 병문에 소시호탕은 그대로 표제처방으로 올라 있다. 그런데 李以斗는 ‘津液’ 병문에서 『寶鑑』에 숨어 있는 여러 내용을 小柴胡湯으로 묶어서 통합하고 있다. 즉 小柴胡湯이 ‘盜汗’의 치료에도 유의미하게 쓰이고 있음을 『寶鑑』의 盜汗 항목에서 찾은 다음, 원래의 小柴胡湯의 적용 병증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원문을 들여다보면 『寶鑑』 ‘津液’ 중 ‘盜汗’의 병기에서 肝熱이 원인일 경우 龍

膽散을 쓰고 膽熱일 경우 小柴胡湯을 쓴다(肝熱者宜龍膽散 膽熱者 宜小柴胡湯)고 한 내용에 착안해서, 『刪定』에서는 ‘津液’ 항목에 小柴胡湯을 배치하고 덧붙여 膽熱의 증상으로 ‘欲眠目合則汗出’을 끌어와서 함께 묶어 수록했다. 뿐만 아니라 李以斗는 小柴胡湯에 다시 肝熱로 인한 盜汗 치료에 쓰는 草龍膽을 첨가하였다. 『寶鑑』의 龍膽散<sup>51)</sup>은 찾아보면 龍膽草와 防風 두 가지 약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주약인 龍膽草를 小柴胡湯에 추가한 것으로 이해된다. 원래 草龍膽이 들어있지 않은 小柴胡湯에 龍膽散의 주약을 합하여 소시호탕의 적용영역을 확장시킨 것이다. 이처럼 李以斗는 小柴胡湯에 少陽病, 盜汗, 膽熱, 肝熱, 龍膽草와 같은 다양한 내용을 하나로 묶어내면서, 상한병증 뿐만 아니라 膽熱과 肝熱의 증상을 포괄하여 치료하는 처방으로 刪定하였다.

芎朮湯의 경우는 아예 병증 설명이 상당 부분 『寶鑑』과 다르다. 『寶鑑』이 濕으로 인한 頭重이 중심이 되는 데 반해, 『刪定』은 도리어 關節의 통증에 더 무게 중심이 있어 보인다. 약제 구성도 半夏가 제외된 대신 陳皮가 들어가 있다. 이런 경우 『刪定』의 궁출탕은 사실 『寶鑑』의 범위를 벗어나 다른 醫書의 내용을 옮겼을 가능성은 없을까도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刪定』이 어디까지나 『寶鑑』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저술된 것임을 염두에 둔다면, 이런 경우 타 의서의 내용을 따서 수록했다기보다는 『寶鑑』의 用藥 原理에 기반한 본인의 의학적 식견을 따라 구성했거나, 또는 본인의 경험방일 여지도 충분히 있다. 崔鍾應의 서문에서 말한 “新方を 따로 만들어 원래 처방의 아래에 덧붙여 놓기도 한” 것에 해당될 가능성 말이다.

玉露散의 경우도 처방구성이 『寶鑑』과 크게 다른데 특징적으로 『刪定』에는 『寶鑑』에는 없는 香薷, 黃連, 厚朴 세 가지 약제를 더 추가하였다. 甘草의

46) 『醫鑑刪定要訣』 원문이미지 92/468면(津液). 279-280/468면(寒).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www.krpia.co.kr/viewer?plctId=PLCT00004698&tabNodeId=NODE03872764&nodeId=NODE03872872>

47) 동의보감번역위원회 編. 대역동의보감. 법인문화사. 서울. 1999. p.493.

48) 『醫鑑刪定要訣』 원문이미지 161/468면.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www.krpia.co.kr/viewer?plctId=PLCT00004698&tabNodeId=NODE03872764&nodeId=NODE03872872>

49) 동의보감번역위원회 編. 대역동의보감. 법인문화사. 서울. 1999. pp.1079-1080.

50) 『醫鑑刪定要訣』 원문이미지 306/468면.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www.krpia.co.kr/viewer?plctId=PLCT00004698&tabNodeId=NODE03872764&nodeId=NODE03872872>

51) 『寶鑑』의 龍膽散은 다음과 같다. 동의보감번역위원회 編. 대역동의보감. 법인문화사. 서울. 1999. p.263. “龍膽散治肝熱盜汗 龍膽草 防風各等分 右爲末 每一錢未飲調下 臨臥時<直指>”

분량 단위가 『寶鑑』 5돈[五錢]에서 『刪定』 5푼[五分]으로 된 것은 板刻 과정의 단순한 착오(分-錢)일 수도 있다. 또는 3가지 약재가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로 약재 분량이 달라진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그 이유가 약의 종류가 많아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 용량을 줄인 것인지도 모른다. 요컨대 暑渴을 치료하기 위해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약재를 3개 추가하여 玉露散의 처방구성을 새롭게 한 李以斗의 뜻이 드러난 『刪定』식 처방이다. 李以斗의 임상적 경험에 의한 추가라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 III. 結語

이상 『刪定』과 『寶鑑』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해 보았다. 기본적으로 『刪定』은 『寶鑑』의 처방을 1/3정도로 줄였고, 처방 구성 또한 간결하게 줄인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물에 달여 하루에 몇 번 복용한다’와 같은 약의 복용법에 대해서는 거의 서술하지 않고 생략하였다. 이는 반복되는 내용을 굳이 재삼 쓰지 않고 책 내용을 간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寶鑑』의 원방에서는 쓰이지 않았던 干三棗二가 『刪定』에서는 더욱 빈번하게 추가되어 쓰이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 역시 약의 복용법을 대체로 통일하고 간단하게 만들기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刪定』이 『寶鑑』을 어떤 방법으로 요약 또는 확장했는가에 대해 먼저 1) 刪定 작업의 범위와 新方의 추가 여부를 분석했고 2) 『寶鑑』의 두 가지 處方 또는 醫案을 하나로 묶은 것, 3) 처방이 속한 『寶鑑』 病門을 재조정하는 것, 4) 『寶鑑』의 내용을 더 상세히 풀어 놓은 것, 5) 『寶鑑』의 처방구성과 병기 설명을 바꾸어 놓은 것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刪定 작업의 실내용은 줄이고 간단하게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전문용어를 풀어주기 위해 더 상세한 설명을 붙인 경우도 보였고, 『寶鑑』의 숨은 곳에서 관련된 내용을 요긴하게 뽑아서 함께 통합해 놓은 부분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李以斗는 『寶鑑』을 그 편제 그대로 두고 거기서 알기 쉽고 쓰기 쉽게 『寶鑑』의 내용을 줄이기도 하고, 통

합하기도 하고, 추가하기도 하고, 변형하기도 하고, 또 드물게는 스스로 창안하여 추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타 의서를 추가로 인용하기보다는 『寶鑑』의 용약 방식에 기반한 李以斗의 의학적 견해가 확장된 것이라는 데에 무게가 실린다. 우리는 崔鍾應의 序文에서 말한 바 “그 책에서 요점이 되는 것을 손수 골라내고 본인의 뜻을 참고삼아 넣었는데, 혹은 君藥과 佐藥을 바꾼 경우도 있고, 혹은 重量을 덜고 더한 경우도 있었으며, 또한 어떤 경우에는 新方을 따로 만들어 원래 처방의 아래에 덧붙여 놓기도 하였고, 그 외 雜方과 俗方은 新方 아래에 나란히 기록해 두었다.”는 것의 실내용을 어느 정도나마 짐작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정황은 李以斗 자신이 쓴 다른 책의 서문에서 나온 저술 태도와 어느 정도 합치하는 것이므로 신빙성을 더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여러 사정을 감안하고서라도 대체로 볼 적에 浩瀚한 분량의 『寶鑑』에 포함된 것을 적절히 뽑아내어 간략히 재수록했다는 평가를 크게 벗어나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李以斗는 『寶鑑』을 존중하여 충실하게 따르면서도 그 세부적인 요약 과정에 있어서는 본인의 이해와 경험을 십분 녹여낸 점이 돋보이는 책을 만들었다고 할 것이다. ‘目錄’과 같은 편집상의 특징에서도, 『刪定』을 보는 독자들이 『寶鑑』을 직접 볼 때보다 더 빠르고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刪定』의 刪定 작업이 다방면에 걸쳐 지능적으로 펼쳐졌음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요컨대, 이 『刪定』은 多才多能했던 천부의 재능을 가졌던 西坡 李以斗라는 학자가 의학 분야에 관심을 뻗쳐서 완성된 저작이다. 그는 조선말기 西勢의 강력한 波高가 밀려들 시점에 유학적 관념에 따른 經世濟民의 뜻을 품고 末職이나마 朝廷에서 벼슬을 살기도 했으며 때로는 志士의 風貌를 보이면서 당대의 지식인들에게 공감을 받기도 했던 學者이자 醫家였다. 한국의 대표적 의학교전인 『寶鑑』이 조선말의 李以斗를 통해 다시 한 번 음미하고 정리되어 더욱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였던 결과가 바로 『醫鑑刪定要訣』이라는 책이라 할 것이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0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 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한국학 특정 분야 기획연구(한국과학문명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AKS-2010-AMZ-2101)

## References

1. Heo J. Translation Committee Edition. Classical Chinese-Korean translation Donguibogam. Beobinmunhwasa. Seoul. 1999.  
허준 저. 동의보감번역위원회 編. 대역동의보감. 법인문화사. 서울. 1999.
2. S Miki. Joseon-uiseoji. Private Publication. 1956.  
三木榮. 朝鮮醫書志. 自家印行. 1956.
3. Kim SG ed.. Hankukuihakdaegy(18). Seoul. Ryeongang Publisher. 1994.  
김신근 주편. 한국의학대계(18). 서울. 여강출판사. 1994.
4.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nowledge Of Oriental Medicine Web Service.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View.jsp?srchTab=1&DataID=KIOM\\_A341\\_Z\\_001&DataName=%E6%9D%B1%E9%86%AB%E5%AF%B6%E9%91%91%E7%9B%AE%E9%8C%84%E4%B8%8A&id=KIOM\\_A341\\_4\\_001\\_0002](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View.jsp?srchTab=1&DataID=KIOM_A341_Z_001&DataName=%E6%9D%B1%E9%86%AB%E5%AF%B6%E9%91%91%E7%9B%AE%E9%8C%84%E4%B8%8A&id=KIOM_A341_4_001_0002)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
5. KOREAN DATABASE.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www.krpia.co.kr/viewer?plctId=PLCT00004698&tabNodeId=NODE03872764&nodeId=NODE03872872>

- 한국의지식콘텐츠. 한국과학기술사자료대계21.
6. Media Korean Studies.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db.mkstudy.com/mksdb/e/korean-anthology/book/reader/2567/?sideTab=toc&articleId=2468390>  
한국의역대문집총서. 서과문집. 詩. 序.
  7.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db.itkc.or.kr/dir/item?itemId=ST#/dir/node?dataId=ITKC\\_ST\\_ZO\\_A23\\_07A\\_18A\\_00250&solrQ=query%E2%80%A0%E6%9D%8E%E4%BB%A5%E6%96%97\\$solr\\_sortField%E2%80%A0\\$solr\\_sortOrder%E2%80%A0\\$solr\\_secId%E2%80%A0ST\\_AA\\$solr\\_toalCount%E2%80%A07\\$solr\\_curPos%E2%80%A06\\$solr\\_solrId%E2%80%A0BD\\_ITKC\\_ST\\_ZO\\_A23\\_07A\\_18A\\_00250](http://db.itkc.or.kr/dir/item?itemId=ST#/dir/node?dataId=ITKC_ST_ZO_A23_07A_18A_00250&solrQ=query%E2%80%A0%E6%9D%8E%E4%BB%A5%E6%96%97$solr_sortField%E2%80%A0$solr_sortOrder%E2%80%A0$solr_secId%E2%80%A0ST_AA$solr_toalCount%E2%80%A07$solr_curPos%E2%80%A06$solr_solrId%E2%80%A0BD_ITKC_ST_ZO_A23_07A_18A_00250)  
한국고전종합DB. 승정원일기.
  8. The Independace Hall of Korea. [cited on January 11, 2018]; Available from:  
<http://search.i815.or.kr/subGanhaeng.do>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Appendix 1. A Comparison list of the contents of Bogam and Sanjeong

편목	『東醫寶鑑』	『醫鑑刪定要訣』	비고
內景篇	身形臟腑圖		항목 생략
	身形	一. 身形(內景)	
	精	二. 精	
	氣	三. 氣	
	神	四. 神	
	血	五. 血	
	夢	六. 夢	
	聲音	七. 聲音	
	言語	八. 言語	
	津液	九. 津液	
	痰飲	十. 痰飲	
	五臟六腑		항목 생략
	肝臟	十一. 肝(五臟)	
	心臟	十二. 心	
	脾臟	十三. 脾	
	肺臟	十四. 肺	
	腎臟	十五. 腎	
	膽腑	十六. 膽(六腑)	
	胃腑	十七. 胃	
	小腸腑	十八. 小腸	
	大腸腑	十九. 大腸	
	膀胱腑	二十. 膀胱	
	三焦腑	二十一. 三焦	
	胞	二十二. 胞 ○ 血閉 ○ 赤白帶下 ○ 五色帶下 ○ 寒入血室 ○ 熱入血室	
	蟲	二十三. 蟲 ○ 勞瘵	
	小便	二十四. 小便 ○ 轉脬證 ○ 交腸證	
	大便	二十五. 大便 ○ 酒泄	
	頭	二十六. 頭(外形)	이상 권1
	面	二十七. 面	
	眼	二十八. 眼	
	耳	二十九. 耳	
	鼻	三十. 鼻	
	口舌	三十一. 口舌	
	牙齒	三十二. 齒牙	
	咽喉	三十三. 咽喉	
頸項	三十四. 頸項		
背	三十五. 背		

外形篇	胸	三十六. 胸	
	乳	三十七. 乳	
	腹	三十八. 腹	
	臍		항목 생략
	腰	三十九. 腰	
	脇	四十. 脇	
	皮	四十一. 皮	
	肉	四十二. 肉	
	脈	四十三. 脈	
	筋	四十四. 筋	
	骨	四十五. 骨	
	手	四十六. 手	
	足	四十七. 足	
	毛髮	四十八. 毛髮	
	前陰	四十九. 前陰	
	後陰	五十. 後陰 ○ 脫肛	
	天地運氣		
	審病		
	辨證		
	診脈		
	用藥		
	吐		
	汗		
	下		이상 항목 생략
	風	五十一. 風	
	寒(上)(下)	五十二. 寒 ○ 傷寒裏證 ○ 傷寒結胸 ○ 中寒證	
	暑	五十三. 暑	
	濕	五十四. 濕	
燥	五十五. 燥		
火	五十六. 火	이상 권2	
內傷	五十七. 內傷		
虛勞	五十八. 虛勞		

雜病篇	霍亂	五十九. 霍亂	
	嘔吐	六十. 嘔吐	
	咳嗽	六十一. 咳嗽	
		六十二. 喘	喘 항목 추가
	積聚	六十三. 積聚	
	浮腫	六十四. 浮腫	
	脹滿	六十五. 脹滿	
	消渴	六十六. 消渴	
	黃疸	六十七. 黃疸	
	痰瘧	六十八. 痰瘧	
	瘟疫	六十九. 瘟疫	
	邪祟		항목 생략
	癰疽(上)(下)	七十. 癰疽	
	諸瘡	七十一. 諸瘡	
	諸傷	七十二. 諸傷	
	解毒		항목 생략
	救急	七十三. 救急	
	怪疾	七十四. 怪疾	
	雜方		항목 생략
婦人	七十五. 婦人		
小兒	七十六. 小兒 ○ 驚搐 ○ 積證 ○ 吐瀉 腹痛 腹脹	이상 권3	
湯液編, 鍼灸編		湯液編, 鍼灸編은 제외되어 있음	